

저도수 알코올음료시장의 잠재력을 보다

카자흐스탄사무소

중앙아시아국가 중 알코올음료 소비량 최고

- 국민의 약 70%가 이슬람교도이지만 다른 이슬람문화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상생활을 엄격히 통제하지 않는 카자흐스탄은 음주문화도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며 중앙아시아국가 중 알코올음료 소비량도 가장 높다.
- 알코올음료 소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2018년 현재 총 식음료 지출의 약 15.5%를 알코올음료로 소비하고 있다. 이미 확고한 시장을 확보한 카자흐스탄의 알코올음료 산업은 젊은 층의 높은 인구비율과 인구 증가율 덕분에 성장잠재력 역시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 알마티와 아스타나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클럽문화 역시 알코올음료 산업성장에 한몫하고 있다. 클럽문화의 대중화에 맞추어 주류업체도 폭탄주나 아이돌그룹초청 행사 등을 펼치며 소비자의 마음을 잡기 위해 발 빠르게 대응하는 중이다.



알코올음료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에페스 맥주와 칼스버그 맥주

저도수 알코올음료 시장의 성장 가능성

- 카자흐스탄 국민들의 알코올음료 소비성향을 살펴보면, 가장 즐겨찾는 주종은 맥주다. 2017년 1인당 맥주 소비량은 36.5리터로 가장 인기있는 알코올음료이나, 이웃국가인 러시아와 비교하면 소비량은 아직 낮은 편이다.
- 맥주시장은 아나돌 에페스(Anadolu Efes)와 칼스버그(Carlsberg)의 두 글로벌 맥주회사가 다양한 브랜드 및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경쟁을 벌이고 있고, 1인당 와인소비량은 2017년 4.7리터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

지만 투자확대, 가처분소득의 증가, 다양한 맛에 대한 수요증가 등으로 와인산업의 성장이 기대된다.

- 증류주의 소비량은 와인의 2배에 달하지만 고도수 알코올에 대한 규제강화 및 세금인상, 젊은 소비자의 저도수 알코올음료 선호 등의 추세에 따라 증류주시장은 성장 둔화가 예상된다. 따라서 보드카, 코냑, 위스키 등의 증류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수가 낮은 한국의 술(소주, 과실주, 맥주 등)이 카자흐스탄 시장진입에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